

고졸 취약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와 정책과제*

최 세 림**

본고는 고졸 비진학 청년 가운데 취약청년을 중심으로 취약특성의 증첩 양상, 경제활동 참여와 일자리 질, 이행 과정의 애로 및 정책수요를 실태조사와 현장전문가 FGI로 종합해, 고용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고졸 취약청년은 환경 취약과 개인 취약의 증첩(이중취약)이 과반(53.2%)으로 나타나고,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는 실업보다 비경제활동(미진입·단념·대기)의 비중이 높아 이행의 병목이 '구직시장 내부'보다 '진입 이전'에서 두드러지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취업하더라도 정규직 비중·임금·근속 등에서 불리하고, FGI에서는 열악한 초기 일자리와 직장 적응(대인관계·의사소통) 어려움이 결합해 조기이탈과 불안정 경로를 강화하는 과정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앞으로 정책이 '발굴(out-reach)-연결-정착'의 연속 경로를 강화하고, 분절된 지원을 통합하며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 지원과 참여 기반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강조한다.

I. 서론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지연은 단순한 '첫 취업' 문제를 넘어, 경력·숙련 축적의 지체와 생애 소득 저하, 나아가 결혼·출산 이행 지연 등과도 맞물린 구조적 과제다. 최근 청년 고용정책은 포괄적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을 확장해 왔으나, 서비스 설계의 기준점은 주로 대졸(재학·졸업) 청년의 구직·전환 과정에 놓여 있었다. 그 결과, 적극적 고용정책의 핵심 타깃이어야 할 취약청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는 '포괄' 되는 수준을 넘어, 집단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체계

* 이 글은 최세림·김영애(2024)의 『고졸 취약 청년의 노동생애 개발과 정착 지원방안 연구』의 제3장과 제5장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본고에서 생략하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schoi@kli.re.kr).

로 충분히 진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고졸 이하·비진학 청년은 고등교육 진학이 보편화된 환경에서 상대적 저학력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그 자체로 고용애로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빈곤, 가족해체, 돌봄부담, 심리·정서 문제, 사회적 고립 등 취약특성이 중첩되는 경우, 노동시장 진입뿐 아니라 진로탐색·인적자본 투자·직장 적응과 경력 형성 전 과정에서 제약이 누적된다. 그럼에도 기존 통계자료는 비진학 고졸 청년(특히 취약집단)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해, 실태와 정책수요를 정교하게 진단하기 어렵다.

이에 본 글은 고졸 비진학 청년 가운데 취약청년을 중심으로 (1) 취약특성의 분포와 중첩 양상, (2) 경제활동 참여와 일자리 질, (3) 이행 과정의 애로 및 정책수요를 실태조사와 현장전문가 FGI를 통해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양적 조사의 '관측 가능한 결과'와, 현장에서 확인되는 '과정의 제약'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향후 고졸 취약청년 대상 고용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하는지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실태조사 개요

본 실태조사는 고졸 취약청년의 취업 현황, 희망 일자리, 인적자본 투자(및 투자 의향), 구직·취업 애로, 노동생애 전망,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의 비진학 고졸 청년층(대학교 중퇴 이하 학력) 가운데 20대 청년(1996~2004년생)이며, 향후 대학 진학 준비·진학 예정자 및 군입대 예정자는 제외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해 온라인·오프라인 방식으로 2024년 8월 1일~10월 4일 실시하였다.

표본 구축은 모집단 정보가 불명확한 고졸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1) 기존 온라인 패널을 통한 1차 조사로 표본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2) 취약집단 표본을 보강하기 위해 취약청년 지원기관(정부·민간)의 협조로 일부 대상을 추가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비교집단 구성을 위해 취약특성이 없는 비진학 고졸 청년도 일정 비중(30% 미만)으로 별도 표집했으며, 취약/비취약 집단별로 권역·성별·연령대 할당을 적용했다. 이러한 조사 설계를 고려할 때, 본 조사는 '고졸 비진학 청년 전체'를 대표하기보다는, 조사에서 정의한 취약집단과 비취약집단을 각각 대략적으로 대표하도록 설계되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취약청년의 구분은 스크리닝 문항을 통해 이루어졌고, 법·제도상 취약 범주를 넘어 노동시장 이행에 애로를 야기할 수 있는 특성을 폭넓게 포함했다. 취약특성은 ① 성장환경(환경 취약)과 ② 현재 개인 특성(개인적 취약)으로 구분하였다. 환경 취약에는 다문화·이주배경(탈북민

포함), 청소년기 빈곤/경제적 취약, 조손가정, 부모 학력(최고학력자가 중졸 이하) 기반 저학력 가정¹⁾, 청소년기 홈리스/가출 경험, 성장기 가족의 장애·질병(일상생활 곤란)이 포함된다. 개인적 취약에는 한국어 어려움, 은둔(3개월 이상), 취업포기/NEET,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쉼터 경험, 기초생활수급, 가족 부양·돌봄 부담, 신체·정서 장애(우울·공황·자살충동 등), 이른 부모됨(만 24세 이전), 미혼부·모, 소년원 경험, 중독(술·마약·게임 등) 등이 포함된다. 최종 유효표본은 중복·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1,109명이며, 이 중 취약집단이 791명, 비취약집단이 318명이다.

분석은 취약·비취약 집단 비교를 기본으로 하여 기초통계 결과를 제시하고, 일부 핵심 성과(취업 여부 등)와 정부 지원(훈련·진로교육·취업지원) 경험에 대해서는 probit/OLS 기반의 결정요인 분석을 병행하였다.

III. 실태조사 주요 결과

1. 고졸 취약청년의 특성

본 절에서는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고졸 비진학 청년의 ‘취약성’이 어떤 양태로 분포하고 중첩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기초역량·사회적 자본·제도적 지원 경험(접점)과 어떻게 맞물려 나타나는지를 정리한다.

가. 표본의 기본 특성과 ‘취약’ 집단의 외연

유효표본 중 취약·비취약 집단 비교를 기본 축으로 결과를 제시한다. 표본의 성·연령 구성은 취약·비취약 간 큰 차이가 없도록 설계되었지만, 경제활동 상태 분포는 현저히 다르게 나타난다. 취약집단은 취업 58.4%, 실업(구직) 5.9%, 비경제활동 35.7%인 반면, 비취약집단은 취업 75.5%, 실업 11.9%, 비경제활동 12.6%로 나타난다. 즉 취약집단의 핵심 특징은 단지 ‘취업률이

1) 부모의 학력 수준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존재할 것을 고려하였다. 일례로 최세림(2021)의 연구에서 고졸 청년의 커리어 경로 이행 결정에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중요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고, 부모의 교육 수준이 자녀의 교육수준과 소득, 진로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는 국내외에 무수히 많다는 점(예를 들어 자녀의 교육 성취-Schlee et al.(2009), 소득-Lee et al.(2024), 진로-최윤미·이문희(2011), 김준영·김현주(2010), 김성경(2015))을 고려하였다.

낮다'는 점을 넘어, 구직(실업)으로 포착되기보다 비경제활동(미진입·구직단념·대기 등)으로 체류하는 비중이 크다는 데 있다. 이 점은 뒤에서 보듯 '개인적 취약'과 '중첩 취약'이 비경제활동 상태에 더 두텁게 분포하는 결과와도 연결된다.

한편, 취약집단은 출신고 유형에서 특성화고·일반고(직업반)·고졸검정고시·중졸 이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취약집단은 마이스티고·일반고(진학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이 보고된다. 이런 분포는 '고졸 비진학' 내부에서도 학교 경로(직업계/비직업계/검정고시 등)에 따라 취약성의 밀도가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나. 취약특성의 중첩: '환경+개인' 이중취약이 표준적 양상

취약집단 내부를 다시 보면, 환경 취약과 개인 취약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취약이 53.2%로 과반이며, 남성(54.5%)이 여성(52.4%)보다 약간 높다. 연령별로도 20대 후반(54.3%)이 20대 초반(52.8%)보다 이중취약 비중이 높다. 또한 20대 후반은 환경 취약 해당 비중이 85.2%(20대 초반 78.7% 대비) 더 높게 나타나는 반면, 개인 취약 해당 비중은 69.0%(20대 초반 74.2%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난다.

무엇보다 주목할 지점은 경제활동 상태별 분포다. 비경제활동 상태인 취약청년의 이중취약 비중이 63.1%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즉, 취약성이 '한 가지'로 존재하기보다 복합적으로 중첩되는 경우에 노동시장 진입(또는 재진입) 자체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1〉 취약집단 유형: 취약집단만

(단위: 명, %)

		사례 수	환경 전체	환경만 보유	환경+개인	개인만 보유	개인 전체
전 체		791	80.4	27.2	53.2	19.6	72.8
성별	남성	297	81.5	26.9	54.5	18.5	73.1
	여성	494	79.8	27.3	52.4	20.2	72.7
연령별	20대 초반	581	78.7	25.8	52.8	21.3	74.2
	20대 후반	210	85.2	31.0	54.3	14.8	69.0
경제활동상태	취업	462	88.5	39.8	48.7	11.5	60.2
	실업(구직)	47	72.3	34.0	38.3	27.7	66.0
	비경제활동	282	68.4	5.3	63.1	31.6	94.7

자료: 최세림·김영아(2024), 〈표 3-7〉 일부 발췌.

다. 환경 취약: '경제적 취약'이 가장 큰 축, 다중 노출도 적지 않음

환경 취약의 세부 유형을 보면, 경제적 취약(70.0%)이 압도적으로 크고, 그다음으로 저학력

〈표 2〉 환경 부문 취약특성: 취약집단

(단위: 명, %)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다문화 가정	탈북민	경제적 취약	조손가정	저학력 가정	홀리스 경험/가출 청소년	장애/질병 가정	해당 사항 없음	
전 체	791	4.6	0.8	70.0	12.0	17.1	14.3	13.8	19.6	
성별	남성	297	4.7	0.3	70.0	12.5	18.2	15.5	14.5	18.5
	여성	494	4.5	1.0	70.0	11.7	16.4	13.6	13.4	20.2
연령별	20대 초반	581	5.3	0.7	69.2	10.7	15.7	13.8	14.5	21.3
	20대 후반	210	2.4	1.0	72.4	15.7	21.0	15.7	11.9	14.8
경제활동상태	취업	462	5.0	0.4	76.6	12.1	15.4	15.2	14.7	11.5
	실업(구직)	47	4.3	0.0	61.7	12.8	21.3	2.1	14.9	27.7
	비경제활동	282	3.9	1.4	60.6	11.7	19.1	14.9	12.1	31.6
취약 집단 유형 ²	환경 취약집단	791	7.0	0.0	84.2	9.8	11.2	8.4	9.8	0.0
	개인 취약집단	215	0.0	0.0	0.0	0.0	0.0	0.0	0.0	100.0
	환경+개인 취약집단	155	5.0	1.4	88.6	17.6	26.4	22.6	20.9	0.0

자료: 최세림·김영아(2024), 〈표 3-8〉 일부 발췌.

〈표 3〉 환경 부문 취약 개수: 7개 주요 항목 기준

(단위: 명, %, 개)

	사례 수	취약집단 전체				환경 취약집단		
		1개	2개	3개 이상	해당 없음	사례 수	평균	
전 체	791	44.9	23.6	11.9	19.6	636	1.65	
성별	남성	297	45.5	24.2	11.8	18.5	242	1.67
	여성	494	44.5	23.3	11.9	20.2	394	1.64
연령별	20대 초반	581	43.5	23.8	11.4	21.3	457	1.65
	20대 후반	210	48.6	23.3	13.3	14.8	179	1.64
경제활동상태	취업	462	52.6	25.1	10.8	11.5	409	1.57
	실업(구직)	47	36.2	29.8	6.4	27.7	34	1.62
	비경제활동	282	33.7	20.2	14.5	31.6	193	1.81
취약집단 유형 ²	환경 취약집단	215	74.9	20.5	4.7	0.0	215	1.30
	환경+개인 취약집단	421	46.1	34.0	20.0	0.0	421	1.82

자료: 최세림·김영아(2024), 〈표 3-9〉 일부 발췌.

가정(17.1%), 흡리스/가출 경험(14.3%), 장애·질병 가족(13.8%), 조손가정(12.0%) 순으로 구성 비중이 높다. 또한 환경 취약은 단일 경험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다. 취약집단에서 환경 취약 항목(7개 주요 항목 기준) 중 1개 보유 44.9%, 2개 23.6%, 3개 이상 11.9%로 보고되며, 환경 취약을 1개 이상 보유한 집단(636명)의 평균 보유 개수는 1.65개로 나타난다. 이는 '환경 취약' 내부에서도 복합 노출(다중 환경 취약)이 상당 비중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취약집단의 다수가 '저소득'이라는 단일 라벨로 요약되기보다, 가족구조·주거불안·돌봄 리스크를 함께 동반하는 성장기 환경 속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 개인 취약: 정서·NEET가 상위, 돌봄·중독·은둔이 뒤를 잇는 구조

개인 취약은 취약집단 791명 중 576명(72.8%)이 해당하며, 세부 유형은 정서적 어려움(34.8%)과 취업포기/NEET(30.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외에도 돌봄 가족 존재(14.7%), 중독(13.0%), 은둔(11.8%), 가족부양(11.5%), 기초생활수급(11.4%) 등이 뒤를 잇는다. 성별로는 개인 취약 유형의 '순위'는 유사하지만, 정서적 어려움(여성 39.3%, 남성 27.3%)과 취업포기/NEET(여성 33.4%, 남성 25.6%)에서 여성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다. 반대로 남성은 자립준비·가족부양·중독 등 일부 유형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개인 취약 역시 다중 보유가 흔하다. 개인 취약 개수(해당자 기준)를 보면 취약집단에서 1개 31.9%, 2개 19.0%, 3개 이상 22.0%로 나타나며, 개인 취약을 1개 이상 가진 집단(576명)의 평균 보유 개수는 2.14개다. 즉 '개인 취약'은 단일 사건(예: 일시적 우울)으로 끝나기보다, 정서-사회적 고립-돌봄/부양-중독/은둔 등이 함께 중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환경 취약과 개인 취약은 서로 독립적으로 나타나기보다 상호 연관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예컨대 저학력 가정·흡리스 경험 집단에서 정서적 어려움 동반 비중이 각각 43.7%, 52.2%로 높게 나타난다. 환경적 결핍이 개인적 취약(특히 정서 영역)과 결합하면서 이행의 제약이 강화되는 경로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표 4> 개인 부문 취약특성: 취약집단

(단위: 명, %)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해당없음
전 체		791	2.1	11.8	30.5	8.7	7.2	11.4	11.5	14.7	4.0	34.8	3.4	0.8	2.0	13.0	27.2
성별	남성	297	2.4	10.4	25.6	10.4	7.1	11.4	16.8	12.1	7.4	27.3	2.0	1.0	3.4	17.2	26.9
	여성	494	2.0	12.6	33.4	7.7	7.3	11.3	8.3	16.2	2.0	39.3	4.3	0.6	1.2	10.5	27.3
연령별	20대 초반	581	1.9	11.4	31.0	10.2	7.2	13.8	11.7	14.5	4.6	35.8	2.8	0.5	1.7	12.6	25.8
	20대 후반	210	2.9	12.9	29.0	4.8	7.1	4.8	11.0	15.2	2.4	31.9	5.2	1.4	2.9	14.3	31.0

〈표 4〉의 계속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해당 없음
경제활동 상태	취업	462	1.7	4.5	0.0	9.7	7.1	9.3	19.7	16.9	2.8	26.8	3.7	1.3	1.5	10.0	39.8
	실업(구직)	47	0.0	10.6	0.0	6.4	4.3	8.5	0.0	6.4	4.3	36.2	4.3	0.0	0.0	8.5	34.0
	비경제활동	282	3.2	23.8	85.5	7.4	7.8	15.2	0.0	12.4	6.0	47.5	2.8	0.0	3.2	18.8	5.3
취약집단 유형2	개인 취약집단	155	1.3	15.5	51.6	5.2	2.6	3.9	7.1	9.0	7.1	43.2	5.2	1.3	0.6	11.6	0.0
	환경+개인 취약집단	421	3.6	16.4	38.2	14.5	12.6	20.0	19.0	24.2	5.0	49.4	4.5	1.0	3.6	20.2	0.0
취약 환경 유형별 (중복 응답)	다문화 가정	36	5.6	11.1	25.0	2.8	16.7	11.1	11.1	16.7	11.1	27.8	2.8	0.0	5.6	13.9	41.7
	탈북민	6	0.0	33.3	66.7	0.0	33.3	50.0	33.3	50.0	0.0	83.3	16.7	16.7	0.0	33.3	0.0
	경제적 취약	554	2.5	11.4	26.4	10.1	7.9	15.0	13.7	16.6	3.2	33.8	2.5	0.7	1.8	13.5	32.7
	조손가정	95	2.1	13.7	28.4	29.5	15.8	22.1	20.0	27.4	1.1	37.9	4.2	1.1	3.2	15.8	22.1
	저학력 가정	135	2.2	16.3	37.8	8.9	14.1	21.5	14.1	23.0	3.7	43.7	3.0	0.7	3.7	20.7	17.8
	홀리스 경험/가출청소년	113	4.4	19.5	34.5	15.9	23.9	21.2	12.4	15.0	8.0	52.2	5.3	0.9	8.0	31.9	15.9
	장애/질병 가정	109	4.6	17.4	28.4	15.6	13.8	22.9	24.8	34.9	8.3	39.4	0.0	0.0	3.7	15.6	19.3

주 : ① 나는 한국어로 말하고 듣고 쓰는 것이 어렵다, ② 나는 집 밖에 안 나가고 다른 사람과 교류 없이 지낸 지 3개월 이상 되었다, ③ 나는 취업을 포기하였고 현재 그냥 쉬고 있다, ④ 나는 자립준비청년(보육원, 그룹홈 퇴소, 위탁가정 보호 종료)이다, ⑤ 나는 청소년쉼터에서 지낸 적이 있다, ⑥ 나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다, ⑦ 나는 현재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⑧ 나는 내가 직접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다, ⑨ 나는 신체 장애가 있다, ⑩ 나는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다, ⑪ 나는 24살 이전에 엄마 혹은 아버지가 되었다, ⑫ 나는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 ⑬ 나는 소년원에 다녀온 적이 있다, ⑭ 나는 현재 혹은 과거에 술, 마약, 게임 등에 심각하게 중독된 적이 있다.

자료 : 최세림 · 김영아(2024), 〈표 3-11〉 일부 발췌.

마. 취약특성과 경제활동 상태: '비경제활동'에서 개인 취약이 더 두텁게 축적

취약집단 내부에서 개인 취약특성의 '축적 정도'는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뚜렷이 달라진다.

〈표 5〉 개인 부문 취약 개수

(단위: 명, %, 개)

		취약집단 - 전체					개인 취약집단	
		사례 수	1개	2개	3개 이상	해당 없음	사례 수	평균
전 체		791	31.9	19.0	22.0	27.2	576	2.14
성별	남성	297	31.0	21.2	20.9	26.9	217	2.12
	여성	494	32.4	17.6	22.7	27.3	359	2.16
연령별	20대 초반	581	33.0	17.9	23.2	25.8	431	2.15
	20대 후반	210	28.6	21.9	18.6	31.0	145	2.11
경제활동상태	취업	462	30.7	15.2	14.3	39.8	278	1.91
	실업(구직)	47	48.9	10.6	6.4	34.0	31	1.35
	비경제활동	282	30.9	26.6	37.2	5.3	267	2.47

자료 : 최세림 · 김영아(2024), 〈표 3-12〉 일부 발췌.

개인 취약을 가진 취약청년의 개인 취약 보유 개수(평균)는 취업자 1.91개, 실업(구직)자 1.35개, 비경제활동자 2.47개로 보고된다. 비경제활동 상태가 단지 '쉬었음'이나 '준비 중'으로 중립적으로 해석되기보다, 개인 취약의 누적·중첩과 결합된 상태로 나타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비경제활동 상태에서 이중취약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63.1%)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바. 제도적 지원 경험(접점) : 환경 취약은 '부분 포착', 개인 취약은 '사각지대'가 큼

취약집단이 취약특성과 관련하여 정부(또는 공공)의 도움을 받은 경험을 보면, 환경 취약 관련 도움 경험은 52.8%로 과반이지만, 개인 취약 관련 도움 경험은 26.6%로 낮게 나타난다. 특히 비경제활동 상태의 취약청년은 도움 경험이 취업·실업 상태보다 낮게 나타나, '지원이 필요한 상태'와 '지원 접점'이 어긋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노동시장 이행 관련 지원 경험 여부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다. 재학 전, 후 직업훈련이나 직업교육 경험 비중은 취약집단이 27.8% 비취약집단이 28.9%로 약간 낮게 나타나며, 진로지도 경험 비중도 취약집단은 48.2%, 비취약집단은 51.6%로 나타나고, 학교나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경험 여부도 취약집단이 34.9%, 비취약집단은 39.3%로 격차가 존재한다.

노동시장 이행 관련 지원의 경우, 결정요인 분석도 수행하였는데, 다양한 취약 형태를 고려한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확인되었다. 졸업 이후 정부지원 훈련·진로교육·취업지도(3종 서비스) 경험 확률을 probit으로 추정된 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이중취약 집단은 비취약집단 대비 서비스 경험 확률이 8.3%p 낮게 나타났다(평균한계효과). 또한 출신고가 일반계고(특성화고 대비)인 경우 서비스 경험 확률이 15.3%p 낮고, 취약집단에 한정한 평균한계효과에서도 -18.3%p로 더 크게 나타난다. '졸업고교 없음(검정고시/중졸 이하 등)' 역시 서비스 경험 확률을 낮추는 방향(-10.2%p, 취약집단 -12.2%p)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여성(전체 +13.4%p)과 연령(전체 +2.3%p)은 서비스 경험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서비스 중 받은 서비스 '개수'를 종속변수로 둔 OLS 분석에서도 서비스 경험 확률 분석과 유사한 패턴이 보고되었다. 직업훈련 경험 확률만을 별도로 본 probit에서도 큰 흐름은 유사하다. 예컨대 이중취약은 직업훈련 경험 확률을 낮추는 방향(전체 -6.6%p)으로 나타나며, 출신고가 마이스터고·일반계고인 경우 직업훈련 경험 확률이 특성화고 대비 낮게 추정된다. 정리하면, '취약할수록' 지원에 더 많이 연결되기보다, 중첩 취약·비직업계 경로(일반계·검정고시 등)일수록 오히려 서비스 접점이 약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정부지원(취약계층 지원, 훈련·진로·취업지도) 경험 : 기초통계 vs. probit

분석 방법		결 과
기초통계	환경 취약 관련 도움 경험	(취약집단만 응답) 52.8%
	개인 취약 관련 도움 경험	(취약집단만 응답) 26.6%
	재학 전, 후 직업훈련, 교육 경험	취약집단-27.8%, 비취약집단- 28.9%
	재학 전, 후 진로지도 경험	취약집단-48.2%, 비취약집단- 51.6%
	학교, 고용센터 취업지원 경험	취약집단-34.9%, 비취약집단-39.3%
Probit	이중취약⇒ 3종 서비스 경험 확률	-8.3%p
	일반계고(vs. 특성화고) ⇒ 3종 서비스 경험 확률	-15.3%p(취약집단의 경우, -18.3%p)
	졸업고교 없음(vs. 특성화고) ⇒ 3종 서비스 경험 확률	-10.2%p(취약집단의 경우, -12.2%p)

자료 : 최세림·김영아(2024), 〈표 3-10〉, 〈표 3-13〉, 〈표 3-56〉, 〈표 3-58〉, 〈표 3-59〉, 〈표 3-60〉의 일부 발췌, 요약.

사. 기초역량과 사회적 자본 : '이행의 보이지 않는 제약'이 취약집단에서 더 두드러짐

1) 기초역량(산수·문해·대인관계/사회성)

기초역량은 단지 학업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구직 정보 이해-직무 훈련 수요-직장 적응과 같은 '이행의 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조사 결과²⁾, 기초역량 4개 영역 중 하나 이상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비중은 취약집단 30.0%, 비취약집단 17.6%로 나타난다. 취약집단에서 어려움이 큰 환경 유형으로는 장애/질병 가족(38.5%), 저학력 가정(34.8%), 흡리스/가출 경험(33.6%) 등이 보고된다.

영역별로 보면, 취약·비취약 모두에서 대인관계/사회생활 어려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취약 22.1%, 비취약 14.8%), 산수·문해 영역은 비취약집단에서 '어려움' 응답이 매우 낮은 반면 취약집단에서는 의미 있는 비중으로 나타난다(취약 : 산수 6.4%, 듣기 문해 14.5%, 읽기 문해 12.0%). 즉, 취약집단은 관계·사회성의 어려움과 함께 기초 문해·산수의 취약이 중첩될 수 있으며, 이는 직업훈련·고용서비스의 이용과 성과를 제약할 수 있다.

2) 구체적으로 각 역량에 관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나는 평소 기초적인 산수(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② 나는 평소 다른 사람이 말로 지시나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③ 나는 평소 글로 된 지시나 설명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④ 나는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별 어려움 없이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편이다. 질문에 따라 '긍정' 혹은 '부정' 응답이 어려움을 나타내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통계표를 작성할 때 재코딩하여 어려움 경험 비중을 파악하였다.

〈표 7〉 현재/성장 기간 중 기초역량과 관련된 어려움 경험 여부

(단위: 명, %)

		사례 수	어려움 없음		어려움 있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취약집단 유형1	비취약집단	318	262	82.4	56	17.6
	취약집단	791	554	70.0	237	30.0
취약집단 유형2	비취약집단	318	262	82.4	56	17.6
	환경 취약집단	215	179	83.3	36	16.7
	개인 취약집단	473	356	75.3	117	24.7
	환경+개인 취약집단	421	281	66.7	140	33.3
취약환경 유형별 (중복 응답)	다문화 가정	36	29	80.6	7	19.4
	탈북민	6	3	50.0	3	50.0
	경제적 취약	554	405	73.1	149	26.9
	조손가정	95	68	71.6	27	28.4
	저학력 가정	135	88	65.2	47	34.8
	홈리스 경험/가출청소년	113	75	66.4	38	33.6
	장애/질병 가정	109	67	61.5	42	38.5

자료 : 최세림 · 김영아(2024), 〈표 3-15〉 일부 발췌.

〈표 8〉 현재/성장 기간 중 기초역량과 관련된 어려움 유형

(단위: 명, %)

	사례 수	기초적인 산수 어려움	말로 된 지시/설명 이해 어려움	글로 된 지시/설명 읽거나 이해 어려움	대인관계/사회성
취약집단	791	6.4	14.5	12.0	22.1
비취약집단	318	0.9	3.8	1.6	14.8

자료 : 최세림 · 김영아(2024), 〈표 3-16〉 일부 발췌.

2) 사회적 자본(관계망 · 지원망)

사회적 자본(관계망)은 일자리 정보 · 정서적 지지 · 위기 대응 자원의 핵심 기반이다. 그런데 고졸 비진학 청년 내부에서도 취약집단의 사회적 자본은 전반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주 1회 이상 연락하는 친구,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빌려줄 사람, 우울 · 스트레스 시 이야기 나눌 사람, 경제 · 사회적 문제 발생 시 상담 가능한 사람을 '0'명으로 응답한 비중이 취약집단에서 비취약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이중취약자나 특정 유형의 취약자(장애, 질병이 있는 가족이 있는 가정, 홈리스 경험자, 조손가정 등)에서 특히 0명 응답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9〉 취약-비취약 고졸 비진학 청년의 사회적 자본 수준

(단위: 응답 비중, %)

항 목	'0명 응답 비중
주 1회 이상 연락하는 친구	취약 11.5%(이중취약자-13.8%), 비취약 3.5%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빌려줄 사람	취약 23.8%(이중취약자-30.6%), 비취약 8.8%
우울·스트레스 시 이야기 나눌 사람	취약 17.8%(장애/질병 가족 있는 가정, 홀리스 경험, 조손가정에서 0명 비중 특히 높음), 비취약 5.0%
경제·사회적 문제 발생 시 상담 가능한 사람	취약 20.2%(이중취약은 28.5%), 비취약 5.3%
몸이 아파서 움직이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취약 12.1%(이중취약은 17.3%), 비취약 4.4%

자료: 최세림·김영아(2024), 〈표 3-18〉~〈표 3-22〉를 요약, 발췌.

이러한 결과는 취약집단이 단지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정서·금전·위기 대응을 지탱하는 관계 기반 자체가 얇은 상태에서 노동시장 이행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중취약과 일부 환경 취약(장애/질병·홀리스 등)에서 관계망 취약이 더 두드러지는 점은, 지원정책이 '신청 중심'일 경우 필요한 대상이 제도 밖에 남을 위험을 크게 만든다.

요약하면, 고졸 취약청년은 (1) 취약특성의 중첩(이중취약)이 빈번하고, (2) 환경 취약에서는 경제적 취약이 큰 축을 이루되 주거·가족 돌봄 리스크와 결합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3) 개인 취약에서는 정서·NEET·돌봄 부담이 핵심이고 다중 보유가 흔하다. 동시에 (4) 기초역량과 사회적 자본의 결핍이 취약집단에서 더 두드러지고, (5) 제도적 지원 경험은 환경 취약보다 개인 취약에서 더 낮으며, 중첩 취약·일반계/검정고시 경로에서 서비스 접점이 약해지는 양상이 probit/OLS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2. 고졸 취약청년의 일자리 이행 실태

실태조사 결과를 경제활동 참여(취업·실업·비경제활동)와 취업 이후 일자리 질(고용형태, 임금, 근로시간, 근속)로 나누어 보면, 취약집단은 노동시장 정착도가 '외연(취업 여부)'과 '심도(근로시간·근속 등)' 양 측면에서 모두 낮은 모습이 확인된다.

가. 경제활동 참여: '구직으로도 이어지지 않는 비경황'의 확대

취약집단은 취업률(58.4%)과 실업률(5.9%)이 모두 비취약집단보다 낮고, 대신 비경제활동 비중(35.7%)이 크게 높다. 반대로 비취약집단은 경제활동 참여는 높지만(취업 75.5%), 실업률도 11.9%로 높게 나타나 '구직은 하나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 이행 지연이 함께 관찰된다.

이 차이는 취약특성의 '중첩'과도 연결된다. 취업확률 결정요인(probit) 분석에서³⁾, 다른 조건

이 동일할 때 개인 취업만·이중취약은 비취약 대비 취업확률이 각각 42.3%p, 21.3%p 낮게 나타난다. 반면 정부지원(직업훈련·진로지도·취업지도) 서비스를 2가지 이상 경험한 집단은 취업확률이 약 7.5%p 높아, 서비스 접근이 취업 이행에 의미 있는 보완 요인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나. 취업 이후 일자리 질: 정규직·임금·근속의 '낮은 천장'과 집단 간 격차

① 고용형태: “정규직 비중이 낮고, 취업집단의 초반부 정착이 더 어렵다”

취업자 기준으로 두 집단 모두 정규직 비중이 가장 크지만, 취업집단의 정규직 비중(45.9%)이 비취약집단(49.4%)보다 낮다. 특히 남성에서 격차가 더 뚜렷하며(취약 45.6% vs 비취약 52.1%), 20대 초반에서는 취약집단 정규직 비율이 35.7%로 더 낮아 ‘초기 정착의 지연’이 강하게 나타난다.

정규직 취업확률(probit 분석⁴)에서도 방향은 일관된다. 전체 표본에서 개인 취업만(-0.244)·이중취약(-0.121)은 정규직 취업확률을 유의하게 낮추며, 취약집단 내부에서도 환경 취업만 대비 개인 취업만(-1.005)·이중취약(-0.535)에서 정규직 취업확률이 크게 낮아진다. 고교 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확률이 높고(전체 0.342; 비취약 0.288; 취약 0.972), 일반계고 및 졸업고교가 없는 청년은 정규직 취업확률이 낮게 나타난다.

② 임금: “취약집단의 임금 수준은 낮고, 연령·경험 증가가 ‘임금상승’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월평균 임금은 취약집단이 194.1만 원, 비취약집단이 225.9만 원으로 격차가 크다(비취약이 약 16% 높다). 임금 결정요인(OLS 분석⁵)은 이 격차가 단순 구성 차이만은 아님을 시사한다. 개인 취업만은 임금수준에 음(-)의 영향을 보이며(전체 -31.131만 원), 성별·연령의 영향도 뚜렷하다(여성 -23.445만 원, 연령 +7.111만 원). 또한 마이스터고 졸업자는 임금이 높고(+63.787만 원), 일반계고 졸업자는 낮게 나타난다(-18.717만 원). 비취약집단에서만 수도권 거주가 임금에 음(-)의 관련을 보이는 점도 관찰된다.

③ 근로시간·근속: “취약집단은 ‘덜 일하고(시간)’, ‘짧게 머문다(근속)’”

주당 근로시간은 취약집단 35.0시간, 비취약집단 36.2시간으로 비취약이 더 길다. 취약집단은 취업 자체가 적을 뿐 아니라, 취업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짧아 ‘심도’ 측면의 결착도도 낮다. 현 일자리 근속기간 역시 취약집단 17.6개월, 비취약집단 19.7개월로 비취약이 2.1개월가량 길

3) 자세한 사항은 최세림·김영아(2024)의 <표 3-29>에 수록되어 있다.

4) 자세한 사항은 최세림·김영아(2024)의 <표 3-40>에 수록되어 있다.

5) 전체 분석 결과는 최세림·김영아(2024)의 <표 3-42>에 수록되어 있다.

다. 특히 20대 후반에서 격차가 더 커져(취약 18.7개월 vs 비취약 23.8개월) 시간이 지나도 ‘정착 격차’가 누적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근속기간 결정요인(OLS)⁶⁾ 분석에서는, 취약집단에서 여성과 연령이 근속기간을 늘리는 요인으로 나타나고(여성 5.116, 연령 1.344), 마이스터고 졸업자는 근속기간이 길게 나타난다(약 10.3개월). 반면 일반계고 졸업자는 다른 유형 대비 근속기간이 짧게 나타난다.

〈표 10〉 취약-비취약 집단 간 노동시장 성과 차이

	취업(%)	실업자 (%)	비경제활동(%)	정규직 비중 (취업자 중, %)	월평균 임금 (만 원)	주당 근로시간 (시간)	현 일자리 근속(개월)
취약	58.4	5.9	35.7	45.9	194.1	35.0	17.6
비취약	75.5	11.9	12.6	49.4	225.9	36.2	19.7

자료: 최세림·김영아(2024), 〈표 3-31〉~〈표 3-34〉를 일부 발췌 및 요약.

다. 업종·직종·사업체 규모: ‘선호·안정 직종’으로의 분포 차이

취약집단은 업종·직종·사업체 규모 분포에서도 상대적으로 소규모·저숙련 부문에 더 많이 위치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보고는 정책과제 도출에 필요한 수준에서만 요약하며, 업종·직종·사업체 규모의 상세 분포는 원 보고서(최세림·김영아, 2024)를 참조하면 된다.

라. 이직 경험·구직 경로·비경험 사유: ‘정보·네트워크’의 격차

현재 취업자 기준 ‘일자리 개수(동시 보유)’는 양 집단 모두 대부분 1개이며(취약 평균 1.14개, 비취약 1.15개), 현재 일자리 개수는 차이가 거의 없다.⁷⁾ 그러나 누적된 일자리 경험에서는 취약집단이 평균 4.64개, 비취약집단이 4.11개로 취약집단의 변동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취약자의 직전 일자리 특성에서 비정규직 경험 비중이 높은 점(70%대 이상)이 언급

〈표 11〉 경험 일자리 개수

	사례 수	(단위: 개)					평균
		1개	2~3개	4~5개	6~9개	10개 이상	
취약집단	707	15.1	28.1	27.2	19.9	9.6	4.64
비취약집단	291	17.5	35.1	24.4	16.2	6.9	4.11

자료: 최세림·김영아(2024), 〈표 3-45〉 일부 발췌.

6) 전체 분석 결과는 최세림·김영아(2024)의 〈표 3-41〉에 수록되어 있다.

7) 최세림·김영아(2024)의 〈표 3-30〉 참조.

되어, '취업-이탈-재진입'이 반복되는 경로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구직 경로는 두 집단 모두 구인공고를 통한 취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학교/선생님 경로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20대 초반 비취약집단은 학교/선생님을 통해 취업한 비중이 13.7%인 반면, 취약집단은 7.3%에 그친다. 이는 취약청년이 학교 기반 네트워크·정보 전달망에서 더 빨리 이탈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중간 매개(학교·교사)'를 활용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비경제활동 청년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취약·비취약 모두 '그냥 쉬고 있음'이 각각 42.9%, 45.0%로 가장 높다. 다만 '쉬었음' 외의 이유에서는 격차가 크다. 비취약집단 비경제활동 청년은 자격증/시험 준비·현재 교육/훈련 중이 42.5%인 반면, 취약집단은 14.5%에 그쳐, 비경제활동 기간이 '준비형 비경제활동'로 전환되지 못하는 문제가 두드러진다.

〈표 12〉 일자리 구한 경로(취업자): 취약/비취약 집단별

(단위: 명, %)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구인 공고	지인/가족	학교/선생님	정부	직업소개소	기업	기타
취약	462	59.5	22.5	6.1	3.2	1.1	0.2	7.4
비취약	240	51.3	24.2	11.3	4.2	1.7	0.8	6.7

주: ① 구인 공고(잡코리아, 알바몬 등)를 보고 지원, ② 주변 지인/가족이 소개, ③ 학교, 학교 선생님이 연결해 줌, ④ 정부(고용센터, 워크넷 등)가 연결해 줌, ⑤ 직업소개소를 통해 연결, ⑥ 인턴십이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기업에 취업, ⑦ 기타.
 자료: 최세림·김영아(2024), 〈표 3-44〉 일부 발췌.

〈표 13〉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비경제활동)

(단위: 명, %)

	사례 수	그냥 쉬고 있음	심리적 장애	자격증/시험 준비	몸이 아파서	육아/가사 때문	교육/훈련 중임	가족을 돌봐야 함	사업 준비	취업 확정/대기
비취약집단	40	45.0	5.0	35.0	5.0	0.0	7.5	0.0	2.5	0.0
취약집단	282	42.9	22.3	12.4	9.9	3.2	2.1	2.8	2.1	2.1

자료: 최세림·김영아(2024), 〈표 3-47〉 일부 발췌.

요약하면, 취약집단은 (1) 비경제활동 비중이 높아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지연되고, (2) 취업 하더라도 정규직·임금·근속에서 불리하며, (3) 업종·직종·사업체 규모 분포가 상대적으로 '저숙련·소규모·불안정' 쪽으로 기울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취약/비취약'의 이분법만으로 설명되기보다, 개인 취약·이중취약, 그리고 일반계고·졸업고교 없음과 같은 학력·학교 경로의 취약성이 함께 작동할 때 더 심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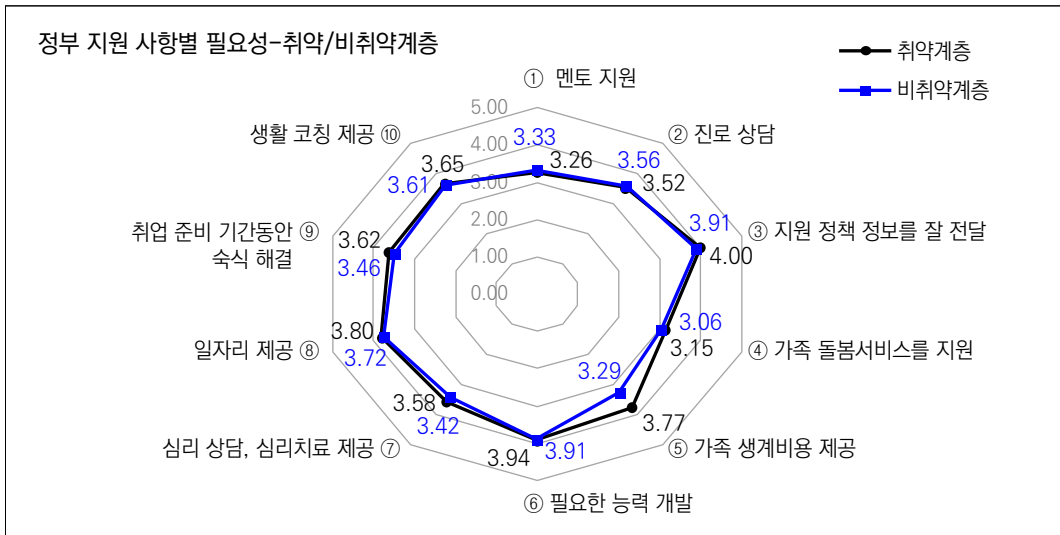
3. 고졸 취약청년의 정책수요

앞서 확인했듯이 취약청년의 어려움은 '취업 여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비경제활동의 장기화, 낮은 일자리 질, 짧은 근속, 취약특성의 중첩 등으로 누적된다. 이런 맥락에서 정책수요는 단순한 취업알선이나 단기훈련을 넘어, 취업 준비와 노동시장 정착 과정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제약(정보 접근, 생계 부담, 기초역량, 정서·관계망 취약)을 완충해 줄 지원의 묶음으로 나타난다.

가. 정책 필요도 : '정책정보-역량개발-알선'이 중심, '생계·생활'이 뒤를 받침

실태조사에서 “삶의 계획과 실행에 필요한 정부 지원”을 10개 항목으로 제시해 필요도를 측정한 결과, 취약집단은 전반적으로 비취약집단보다 정책 필요도를 다소 높게 평가한다. 특히 취약집단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 정보 제공'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평균 4.00점)했고, 직업 능력개발(3.94점), 일자리 알선(3.80점)이 뒤를 이었다.

[그림 1] 정부 지원 사항별 필요성 평가:취약/비취약 집단



주 : ① 평소에 진로 고민 등을 상담할 수 있는 멘토 지원, ②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알려줄 수 있는 진로 상담, ③ 내 상황에 맞는 국가의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해 주면 좋겠다, ④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때까지 내 가족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⑤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때까지 내 가족의 생계비용을 주면 좋겠다, ⑥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필요한 능력을 개발시켜주면 좋겠다, ⑦ 내가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심리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다, ⑧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해주면 좋겠다, ⑨ 내가 교육/훈련/자격증 취득/시험 준비 등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나의 숙식을 해결해주면 좋겠다, ⑩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 코칭(건강, 안전, 법/권리, 돈 관리 등)을 해주면 좋겠다.

※ 필요도: 5점 척도('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 3점, '필요한 편이다' 4점, '매우 필요하다' 5점)의 평균

자료 :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목할 점은 상위 수요가 ‘취업’ 그 자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취업집단에서는 직업훈련 기간 가족 생계비 지원(3.77점), 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교육(3.65점), 훈련·교육·자격증 준비 기간 숙식 지원(3.62점)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심리상담/치료(3.58점), 진로상담(3.52점) 역시 중상위권에 위치한다.

반면 멘토 지원(3.26점), 취업 준비·구직 기간 가족 돌봄 지원(3.15점)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취약청년의 생활 조건과 개인 취약(정서·은둔·돌봄 부담 등)이 중첩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항목들이 ‘불필요’라기보다 정책의 접근방식·제공방식에 따라 체감 필요도가 달라질 여지가 있는 영역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비취약집단에서도 최상위 수요는 동일하게 정책정보 제공(3.91점)이며, 직업능력개발(3.91점), 일자리 알선(3.72점), 생활 코칭(3.61점), 진로상담(3.56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된다. 다만 ‘직업훈련 기간 가족 생계비 지원’의 경우, 취약집단과 비취약집단 간 필요성 인식 격차가 크다. 이는 취약집단에서 훈련·구직 과정이 곧바로 ‘기회비용(임금)-생계 부담’으로 전환되며, 결과적으로 준비 활동 자체를 제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정책수요의 중심축은 ① ‘정책정보 접근’(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문제), ② ‘역량개발’(훈련·자격·준비), ③ ‘일자리 연결’(알선)이지만, 취약집단의 수요는 여기에 ④ 훈련·구직 기간의 생계·숙식·생활 기반 지원, ⑤ 정서·진로 지원이 결합되어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나타난다.

나. 통합형 프로그램(한국형 Job Corp⁸⁾) 참여 의향: “있다면 참여”가 과반

정책수요를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형태로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주거·식사·훈련수당을 지원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교육·직업훈련·생활교육을 제공하며, 지역 내 괜찮은 일자리로 연결되는 통합 프로그램(‘한국형 Job Corp’)을 제시하고 참여 의향을 조사하였다.

응답을 보면 ‘참여 의향이 있다(4점 이상)’는 비중이 취약집단 60.6%, 비취약집단 55.7%로 두 집단 모두 과반이며, ‘매우 높은 참여 의향(5점)’도 취약 16.9%, 비취약 17.3%로 적지 않다. 또한 참여 의향은 취약집단 내에서는 비경제활동 청년, 비취약집단에서는 실업자, 그리고 여성·20대 초반, 일반고(직업반)·검정고시 출신, 서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지원

8) Job Corp는 미국의 직업훈련 관련 정부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으로 고졸 비진학 취약청년 대상 통합적 고용서비스/훈련 프로그램이다. Job Corp는 지역/권역별 모집기관이 Out-Reach 방식을 통해 참여 대상에게 접촉하여 참여자를 모집하고 청년의 희망 진로에 따라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Job Corp센터로 연계하여 본격적으로 통합훈련(직업훈련, 기초역량 교육)과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숙식비와 생활비, 개인별 취약특성 해소를 위한 지원(예: 중독 치료, 재활, 자녀 돌봄)을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캠퍼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각 지역의 Job Corp센터는 지역에서 수요가 높은 직종, 혹은 특정 업종 단체 등이 Job Corp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서 필요한 4~5개 직종에 대해 장기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Job Corp 이수 후 취업이나 학위과정으로 연계하고, 취업 이후에도 직장 적응을 위한 후속지원을 하고 있다.

이 있으면 참여하겠다'는 잠재수요가 상당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특히 비경제활동 상태에서 훈련·일경험·정착지원이 결합된 프로그램이 '진입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14〉 한국형 Job Corp 참여 의향

(단위: 4점 이상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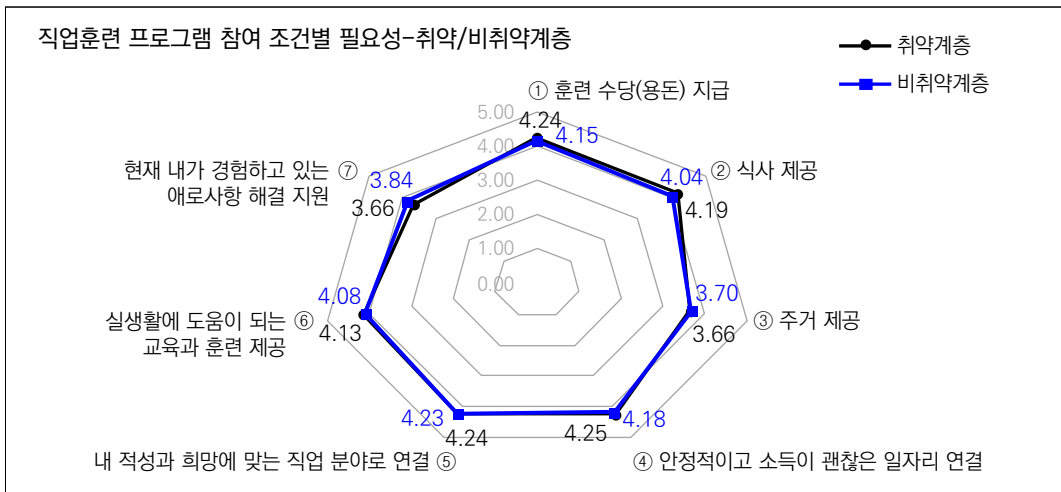
	사례 수	① 전혀 없음	② 별로 없음	③ 보통	④ 약간 있음	⑤ 매우 많음	(④+⑤) 참여 희망	5점 평균 (점)
취약	791	6.8	10.0	22.6	43.6	16.9	60.6	3.54
비취약	318	7.5	10.1	26.7	38.4	17.3	55.7	3.48

자료: 최세림·김영아(2024), 〈표 3-71〉 일부 발췌.

다. 참여 조건: 훈련수당(소득보전)과 '괜찮은 일자리 연결'이 사실상 핵심

통합형 프로그램의 '성공 조건'을 묻는 문항에서는, 취약·비취약 모두에서 훈련기간의 소득보전(훈련수당)과 결과로서의 괜찮은 일자리 연결, 그리고 적성/희망에 맞는 직업 연결이 반복적으로 상위에 위치한다. 취약집단의 조건별 필요도(5점 평균)는 괜찮은 일자리 연결(4.25점), 적성·희망에 맞는 직업 연결(4.24점), 훈련수당 지급(4.24점)이 최상위권이며, 식사 제공(4.19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 제공(4.13점)이 뒤를 잇는다. 비취약집단도 적성 매칭(4.23점)-

[그림 2]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시 필요 조건-취약/비취약 집단



주: ① 훈련 수당(용돈) 지급, ② 식사 제공, ③ 주거 제공(살 곳), ④ 안정적이고 소득이 괜찮은 일자리 연결, ⑤ 내 적성과 희망에 맞는 직업 분야로 연결, ⑥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 훈련 제공, ⑦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 지원.

※ 필요도: 5점 척도('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 3점, '필요한 편이다' 4점, '매우 필요하다' 5점)의 평균.

자료: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괜찮은 일자리 연결(4.18점)-훈련수당(4.15점) 순으로 유사한 구조다.

조건을 '1·2순위'로 직접 선택하게 한 결과에서도 메시지는 더 선명해진다. 취약집단에서 훈련수당을 1순위로 선택한 비중은 44.1%(비취약 38.7%)이며, 1+2순위 합계에서도 취약 57.8%, 비취약 50.0%로 가장 크게 나타난다. 또한 적정 훈련수당 수준은 취약집단 평균 79.2만 원, 비취약집단 평균 70.9만 원으로 제시되어, 취약집단에서 '준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요구가 더 높게 나타난다.

즉 취약청년이 요구하는 '통합지원'의 핵심은 훈련의 제공만이 아니라,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소득·생활 기반(훈련수당 등)과, 훈련의 결과가 "괜찮은 일자리"로 귀결될 것이라는 연결(매칭·알선)이다.

라. 포함되어야 할 교육·훈련 내용: 일경험 중심+취업준비+자격, 그리고 생활·사회 스킬

프로그램이 제공해야 할 교육 내용에서는, 취약·비취약 모두에서 현장실습·일경험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되었다(취약 4.1점, 비취약 4.2점). 그다음으로는 면접·자소서·이력서 등 취업준비 교육(취약 4.03, 비취약 4.11), 자격증 취득 교육(취약 3.99, 비취약 4.02)이 상위에 위치한다. 동시에 시간 관리·일 태도·의사소통 등 생활/사회 스킬 교육 역시 두 집단 모두 3.7점 이상으로 낮지 않게 나타나, "취업을 위한 기술"뿐 아니라 "취업 이후의 적응과 근속"을 좌우하는 기초 스킬에 대한 수요가 함께 확인된다.

우선순위 선택(1+2순위)에서도 취약집단은 일경험·취업준비·자격증을 상위로 두면서, 회사 적응 멘토링, 생활교육, 사회생활 지식, 심리상담/치료, 기초영어학습 등을 일정 비중으로 선택한다. 비취약집단 역시 사회생활 지식, 회사 적응 멘토링, 생활교육에 대한 선택이 적지 않다. 이는 정책수요가 '직업기술 교육'으로만 수렴하지 않고, 정서·관계·생활역량을 포함한 전이 가능한 역량 묶음이 필요로 함을 보여준다.

정책수요 결과를 종합하면, 취약청년이 체감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는 정보(접근성)-역량(훈련·준비)-연결(알선)이라는 기본 축 위에, 훈련·구직의 비용을 감당하게 하는 생계·숙식 지원과 정서·생활역량 지원이 덧대어진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통합형 프로그램(한국형 Job Corp)에 대한 과반의 참여 의향과 '훈련수당-괜찮은 일자리 연결-적성 매칭'의 상위 조건은, 취약청년 정책이 분절적 서비스 제공을 넘어 "참여할 수 있는 설계(소득보전)" + "성파로 이어지는 설계(일자리 연결)"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15〉 필요한 교육 분야

교육 분야	취약집단				비취약집단			
	1순위		종합순위 (1+2순위)		1순위		종합순위 (1+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직업이론	29	3.7	56	7.1	19	6.0	32	10.1
사업체 현장에서 현장실습, 일경험	211	26.7	332	42.0	102	32.1	154	48.4
기초 학습(국어)	13	1.6	21	2.7	6	1.9	11	3.5
기초 학습(산수)	10	1.3	22	2.8	6	1.9	11	3.5
기초 학습(영어)	45	5.7	80	10.1	13	4.1	25	7.9
한국어	17	2.1	31	3.9	6	1.9	17	5.3
검정고시 준비	12	1.5	21	2.7	4	1.3	6	1.9
성격 코칭	18	2.3	33	4.2	7	2.2	13	4.1
심리상담/심리치료	50	6.3	96	12.1	5	1.6	18	5.7
진로지도/교육	18	2.3	49	6.2	8	2.5	13	4.1
면접, 자소서, 이력서 작성 방법	140	17.7	277	35.0	55	17.3	105	33.0
회사 취업 후 적응할 때까지 멘토링	33	4.2	110	13.9	9	2.8	33	10.4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시간 관리, 일할 때 태도, 의사소통법 등)	50	6.3	107	13.5	19	6.0	53	16.7
생활 교육(건강관리/운동, 법/권리, 돈 관리하는 법, 생활안전 등)	32	4.0	109	13.8	13	4.1	34	10.7
자격증 취득 교육	96	12.1	195	24.7	40	12.6	96	30.2
대학 진학 및 학위과정 연결	17	2.1	43	5.4	6	1.9	15	4.7
합 계	791				318			

주 : ① 직업이론, ② 사업체 현장에서 현장실습, 일경험, ③ 기초 학습(국어), ④ 기초 학습(산수), ⑤ 기초 학습(영어), ⑥ 한국어, ⑦ 검정고시 준비, ⑧ 성격 코칭, ⑨ 심리상담/심리치료, ⑩ 진로지도/교육, ⑪ 면접, 자소서, 이력서 작성 방법, ⑫ 회사 취업 후 적응할 때까지 멘토링, ⑬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시간 관리, 일할 때 태도, 의사소통법 등), ⑭ 생활 교육(건강관리/운동, 법/권리, 돈 관리하는 법, 생활안전 등), ⑮ 자격증 취득 교육, ⑯ 대학 진학 및 학위과정 연결.

※ 필요도 : 5점 척도('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 3점, '필요한 편이다' 4점, '매우 필요하다' 5점)의 평균.

자료 : 최세림 · 김영아(2024), 〈표 3-76〉 일부 발췌.

IV. 고용서비스 담당자 FGI 결과

1. FGI 개요

본 연구는 실태조사에서 포착된 결과가 ‘어떤 과정의 제약’으로 만들어지는지를 보완하기 위해, 고졸 취약청년을 직접 상담·지원해 온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개인별 이행경험의 이질성이 큰 집단 특성상, 다수 사례를 축적한 현장전문가 면접을 통해 공통된 특징과 정책수요를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FGI 참여자는 총 10명으로, 청년 취업지원기관 센터장·팀장급 실무자, 특성화고 취업담당 교사, 교육복지사 등을 포함하였다. 조사는 수도권(서울·경기도 일부 지역)과 비수도권(광역시 중심)으로 나누어 참여자를 섭외했으며, 2024년 10월 22일과 24일 총 2회(각 약 90분), 온라인(ZOOM)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주요 결과

FGI에서 도출된 내용은 전반적으로 실태조사·계량분석 결과와 같은 방향을 보이며, 특히 “취업 이전의 준비-취업 과정-취업 이후 적응”에서 무엇이 병목으로 작동하는지(과정 메커니즘)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가. 실태조사 결과 이전의 ‘과정’

첫째, 현장전문가들은 고졸 취약청년의 개인적 특징으로 자기인식 부족과 성공 경험의 부재를 반복적으로 지적한다. 이는 진로 탐색을 시작하기 어렵게 만들고, 준비 과정에서 작은 실패에도 좌절·포기로 이어져 이행의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제시된다.

둘째, 가족·환경 측면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형편과 더불어, 취업과 관련해 조언·모델링을 제공할 수 있는 멘토 부재/취약한 가족구조가 함께 언급된다. 이로 인해 ‘당장 취업’이 우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장기적 경력 설계·훈련투자가 뒤로 밀리는 구조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취업 전 준비 단계에서 막연한 취업 인식·짧은 준비 기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낮은 흥미와 참여도, 취업정보 접근의 어려움(필요정보 선별 역량 부족), 사회적 관계망 부족이 함께 보고된다. 이는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사회적 자본의 취약, 정책·서비스 접점의 낮음과 맞물려,

“지원이 있는데도 연결되지 않는” 메커니즘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넷째, 취업의 첫 관문에서도 빈약한 이력서·자기소개서, 취업시장 경쟁력이 약한 자격증 등이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즉 ‘훈련·자격’ 자체가 없어서라기보다, 시장에서 유효한 경험·증빙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나. 실태조사에 ‘추가되는’ 발견: 취업 이후 조기 이탈(이직·비경활)의 핵심 고리

FGI 결과, 추가로 확인한 것은 “취업 이후 적응” 제약에 구조적인 경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장전문가들은 취업 이후에도 비정규직·단순업무 배치, 아르바이트와 유사한 저임금, 경력/숙련 개발 기회 제한, 학력·나이에 따른 차별적 대우, 열악한 근무환경이 결합해 직무만족과 정착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직장 내에서의 대인관계·의사소통 어려움,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의 소극적 문제해결이 빈번하게 언급된다. 이는 단순히 ‘태도 문제’로 환원되기보다, 기초역량·사회적 경험 결핍과 연결된 직장 적응 스킬(커뮤니케이션/생활 스킬)의 공백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취약청년의 낮은 고용유지(짧은 근속, 잦은 이직)는 ‘첫 취업’의 성패만으로 설명되기보다, (불안정·저숙련 일자리) × (적응 스킬 공백) × (차별·열악한 환경)이 상호작용하며 누적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 정책 함의: “단계별 맞춤 + 통합지원 + 고용유지”와 전달체계 재구조화

정책 논의에서 현장전문가들은 지원서비스 차원에서 ① 개별 맞춤형·단계별 서비스 강화, ② 취업과 일상생활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 ③ 고용유지를 위한 지속 지원, ④ 효과적 서비스의 확대·매뉴얼화, ⑤ 청년 감수성을 반영한 서비스 개발을 제시하였다.

지원체계 차원에서는 ① 전문인력 배치, ② 컨트롤타워 구축과 원스톱 서비스 강화, ③ 유관기관 협력체계, ④ 생애주기별 지속지원, ⑤ 정책·지원센터에 대한 적극 홍보, ⑥ 고졸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⑦ 고졸 취업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강조하였다. 특히 FGI에서는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심리 지원과 능력개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부각되었다. 이는 취약청년이 비취업 상태에서는 진로탐색·능력개발이 지체되고, 취업 상태에서도 단순직을 전전하며 능력개발이 발생하지 않는 현실을 동시에 겨냥하는 것이다.

V. 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앞서 실태조사와 FGI 분석 결과, 고졸 비진학 취약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은 '취업 전-취업 과정-취업 후 정착' 전 구간에서 취약특성이 누적·증폭되는 구조로 확인되었다. 취약집단 내부에서도 환경 취약과 개인 취약이 중첩되는 이중취약이 표준적 양상으로 나타나며, 비경제활동 상태에서 이중취약 비중이 더 높게 관찰된다. 또한 취약집단은 비경제활동 비중이 높아(취약 35.7%, 비취약 12.6%), '실업(구직)' 이전 단계에서 체류·단념이 길어지는 병목이 두드러지고, 취업하더라도 정규직·임금·근로시간·근속에서 불리해 노동시장 정착도가 외연과 심도 양 측면에서 함께 약해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정책 현황을 보면, 고졸 비진학 청년이 활용 가능한 청년정책이 적지 않지만 실제 설계의 기준점은 대체로 대학 재학생·대졸자의 여건에 맞춰져 있고, 복합 취약특성은 부처별, 연령별로 분절 지원되는 구조여서 중복과 사각지대가 동시에 발생하기 쉽다.

다만 최근 발표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쉬었음' 청년에 대해 DB 기반 선제 발굴과 찾아가는(out-reach) 연계를 정책의 한 축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방향 전환의 의미가 있다. 특히 학생(고졸)·군 장병 정보 수집과 동의 기반 연계를 통해 미취업 청년을 더 적극적으로 포착하고, 온라인·오프라인 접촉과 회복지원(상담·프로그램 연계 등)을 묶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 제시되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그러나 고졸 취약청년의 경우 취약특성의 중첩, 낮은 관계망, 생계 압력 때문에 '발굴-연결'이 실제 참여와 정착으로 이어지기까지 추가 장치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아웃리치 강화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한 접촉 확대를 넘어 지속적 사례 관리, 소득·생활 기반 보완, 훈련-일경험-취업-정착의 연속 경로 설계까지 함께 구체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1. '후학습'이 작동하는 숙련형성 경로를 국가가 구축

선취업-후학습이 '선취업'만 남지 않도록, 고졸 비진학 청년이 직업계고 졸업 여부나 재학 혹은 졸업 상태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필요시 미래 유망직종에서 체계적으로 숙련을 형성하는 경로로 진입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훈련 루트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기업·중견기업이 고졸 청년을 채용해 훈련·경력 경로를 설계하도록 유인하고, 훈련이 선호 일자리로 이어지는 연결장치를 강화해 내가는 것이 필요하다.

2. 취약특성 해소+고용서비스를 묶는 통합 프로그램, 그리고 ‘연결의 지속성’ 강화

정부가 DB 기반 선제 발굴과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과제는 발굴 이후 ‘지속적으로 붙잡아 주는 연결’을 제도 설계로 확실히 만드는 것이다. 고졸 취약청년은 신청형 서비스만으로 포착이 어렵고, 한번 연계되더라도 중도이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취약특성 해소(심리·관계·생활)와 훈련·일경험·취업지원을 묶은 통합 프로그램을 마련하되, 초기 접촉 이후에도 재접촉·동행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3. 원스톱 연계기관(전담조직) 구축

복합 취약특성을 가진 청년이 여러 부처 사업을 ‘스스로 조합’하기는 어렵다. 취약특성 지원과 고용서비스·직업훈련을 한 자리에서 연계(사례 관리)하고, 기존 산발적 지원을 종합·조정할 전담 기능(기관)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발표된 정책 방향은 취약 유형별로 각 부처로 단순히 ‘이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나 사례별로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4. ‘취업촉진+훈련’만으로는 부족 : 진로탐색·기초역량·심리정서·생활/사회스킬의 패키지화

취약특성은 취업 전·후 전 과정에서 제약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은 진로 탐색·자아 인식, 기초학습역량, 심리정서 지원, 대인관계·사회생활 및 일상생활 스킬을 포함하는 종합형 지원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취업 이후에도 고용유지·능력개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5. 참여 문턱을 낮추는 보충수당 체계(소득활동 제한 완화 포함)

취약청년은 부양·돌봄·부채 등으로 당장 소득 압력이 크다. 낮은 수당과 엄격한 소득활동 제한은 훈련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불안정 일자리 고착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취약청년에 대해 생계·부양을 보완하는 보충수당을 설계하고 참여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책이 보여준 아웃리치 강화와 ‘회복’ 지원의 문제의식은 정책 전환의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이제 이 흐름이 고졸 취약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개선에도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발굴 이후의 지속적 사례 관리와 소득·생활 기반, 그리고 훈련-일경험-정착을 잇는 연속 경로가 함께 정교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완이 축적될 때, 고졸 취약청년이 불안정 일자리의

반복을 넘어 숙련형성과 지속 가능한 경력경로로 이동할 수 있는 현실적 사다리가 한층 선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2025. 9.), 「청년의 첫걸음을 응원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추진방안」.
- 김성경(2015),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의 경로모형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51, pp.23~46.
- 김준영·김현주(2010), 「청소년의 진로 이행과 청소년, 부모의 인적 및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2(2), pp.23~52.
- 최세림(2021), 『고졸 청년 노동시장 수요 공급 특징과 정책과제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최세림·김영아(2024), 『고졸 취약 청년의 노동생애 개발과 정착지원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최윤미·이문희(2011), 「진로성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9(2), pp.171~187.
- Lee et al.(2024), “The Causal Effect of Parents’ Education on Children’s Earnings,” NBER Working Paper Series, 32223.
- Schlee, B. M., A. K. Mullis, and M. Shriner(2009). “Parents’ social and resource capital: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during early childhood,”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1(2), pp.227~234.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08.07.014>